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심리전(心理戰)의 양상과 의미*

한정미**

〈차
례〉

1. 머리말
2. 문학작품에서의 ‘심리전(心理戰)’의 개념
3. 인물 간 중층적 심리전의 전개 양상
 - 1) 정염을 타깃으로 한 정인중의 심리전
 - 2) 정성염을 타깃으로 한 여원홍의 심리전
4. 심리전 전개의 효과와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문 장편소설 〈완월회맹연〉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 속 등장인물 간 전개되는 심리전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실제 군사 전략에서 상용되던 심리전이란 용어를 본격적인 문학 연구에 차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심리전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신경전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전술에서의 심리전과 갖는 차이를 파악하여 문학작품 연구에서 심리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인물의 특성, 목표 대상의 성격 등의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작품 내 심리전을 분석한 결과, 〈완월회맹연〉에서는 인물 간 중층적 심리전의 전개 양상이 포착되었는데, 곧 ‘정염을 타깃으로 한 정인중의 심리전’과 ‘정성염을 타깃으로 한 여원홍의 심리전’이다. 이 두 가지 심리전은 정인중이 벌이는 심리전 내에 하위 전술로

* 이 논문은 한국고전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2021년 11월 13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김수연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강사

여원홍의 심리전이 포함된 형태로 전개되었다. 심리전의 양상에서 드러나는 딸을 대하는 두 아버지의 태도를 통해 〈완월회맹연〉의 작가는 주변인물과 주변서사를 통해 끊임없이 당대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며 그것에 균열을 일으키는 서사전개를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이념에 우선하는 인간적 본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국문 장편소설의 서사 및 구성 전략을 인물의 심리라는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작품이 지닌 흡인력의 주요 동인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심리전, 〈완월회맹연〉, 신경전, 성격, 이념, 본성, 국문 장편소설, 주변인물

1. 머리말

이 글은 국문 장편소설 〈완월회맹연〉을 대상으로 작품 속 등장인물 간 심리전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꾸준히 제출된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완월회맹연〉은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뚜렷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우선 정병설은 장면전개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등장인물의 심리나 행위를 섬세하게 그려내는 것은 장면전개의 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곧 장면전개의 확대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표출이 심화되는 지점을 이 작품의 서사적 특징으로 꼽았다.¹⁾

한길연은 작품 속 ‘정인광’에 주목하여 가부장제 집단 의식에 강박된 폭력적 가부장이 도리어 자신이 속한 가부장 체제에 의해 고통 받는 개인이 될 수 있음을 조명함으로써, 조선후기 당대 가부장제가 지닌 맹점을 짚어 주었다. 그런 가운데 정인광이라는 가부장적 폭군의 이면에 자리한 그의 고통스런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형상화하면서 그가 인간적 감정의 발로를

1)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83~123쪽.

스스로 통제하고 차단해내려는 모습을 포착해냈다.²⁾ 또한 등장인물 중 ‘박씨’라는 여성을 조명하여 당대 여성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며 감정을 거리낌 없이 표출하는 생동감 있는 캐릭터로서 국문장편소설의 발산형 여성 인물을 새롭게 발견하였다.³⁾

장시광은 작품 속 여성들이 겪는 수난의 양상을 도표로 제시하는 가운데 여성들은 다양한 육체적 수난과 더불어 아이를 잃은 슬픔, 경거망동하는 부모로 인해 겪는 심적 고통 등의 정신적 수난을 감내하고 있음을 살폈다.⁴⁾

탁원정은 작품에 등장하는 소교완, 이자염, 장성완의 세 여성에 주목하면서 그녀들이 정씨 부종의 남편들과의 관계에서 가문이데올로기 하에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의해 배제되고 타자화 되는 가운데 소외감으로 인한 병증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⁵⁾ 또한 자식의 혼사 과정에서 보이는 아버지의 형상을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해 감정적인 아버지와 비상식적인 아버지로 구분하여 등장인물의 성향을 분석하였다.⁶⁾

한정미는 작품 속 특징적 인물들이 지닌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방어기제의 작동이 인물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음을 살폈다. 아울러 인물의 내적, 외적 갈등의 심리적 동인을 고찰하는 가운데 등장인물들의 심리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에 관해 연구를 진행한바

2)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정인광: 폭력적 가부장의 “가면”과 그 “이면”」,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27~64쪽.
3) 한길연, 「대하소설의 발산형 여성 인물 연구-〈완월회맹연〉의 박씨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353~386쪽.
4) 장시광, 「대하소설 여성수난담의 성격-〈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47, 동양고전학회, 2012, 7~50쪽.
5) 탁원정,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병과 그 의미」, 『문학치료연구』 4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161~193쪽.
6) 탁원정,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 속 아버지 형상과 그 의미-자식의 혼사 과정에서 보이는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5~32쪽.

있다.⁷⁾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완월회맹연〉은 각 인물이 지닌 성격이 어떠한 심리적 동인에 의해 형성되고, 그러한 인물의 내적 일관성이 여타의 주변 인물들과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에 이 작품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 등장인물의 심리를 염두에 두는 가운데 작품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취지 아래 〈완월회맹연〉이란 작품 속 등장인물들을 검토하다 보면 이들이 벌이는 심리전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게 된다. 〈완월회맹연〉에서는 흔히 인물 간 갈등 관계를 보여줄 때에도 한 인물이 상대방의 성격과 특성을 간파한 후 그 심리를 이용해 자신이 목적인 바를 달성하려는 이른바 ‘심리전(心理戰)’의 한 일면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인간 심리에 대한 섬세하고 탁월한 통찰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⁸⁾

다만 문학작품 연구에서 ‘심리전’을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심리전’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주로 실제 군사작전에서 활용되는 전략으로 다룬 경우가 많았고, 실전(實戰)을 대비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들이 대부분이었다. 유일하게 발견한 관련 논의는 국문 장편소설 연구에서 탁원정⁹⁾이 〈쌍천기봉〉연작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분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심리전’인데, 필자가 평가하기에 이 경우는 신경전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¹⁰⁾

한편 한길연은 거대 장편을 당대 독자들이 끝까지 읽어낼 수 있도록 한

7) 한정미, 「〈완월회맹연〉 인물 심리의 형상화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2021, 1~248쪽.

8) 한정미(2021), 위의 논문, 62쪽.

9) 탁원정, 「〈쌍천기봉〉 연작의 혼인담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분노」, 『고소설연구』 39집, 2015, 229쪽.

10) 이에 관한 논의는 2장에서 〈완월회맹연〉 내용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자세히 다룬다.

서사적 장치를 서사 전략적 측면에서 주목하는 가운데 <완월회맹연>의 서사문법을 여담의 기법, 모두(冒頭)와 끝의 상응 기법, 반복의 기법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¹¹⁾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인물 간 심리전의 양상 또한 국문 장편소설의 서사 및 구성 전략을 인물의 심리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는 점에서 <완월회맹연>이란 작품이 지닌 독자 흡인력의 주요 동인을 밝히는 데 일조할 것이다.

연구 대상작품은 김진세 독해본 『玩月會盟宴』 12책(서울대 규장각본 <玩月會盟宴> 180권 93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낙선재본 <玩月會盟宴> 180권 180책으로 정한다.¹²⁾

2. 문학작품에서의 ‘심리전(心理戰)’의 개념

심리전은 본래 군사학에서 사용되는 전술 용어로서, 동양의 ‘심전(心戰)’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¹³⁾ 과거 주로 병법서(兵法書)에서 적을 공략

11)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서사문법과 독서역학」,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27~55쪽.

12) <완월회맹연>은 총 3종의 이본이 존재하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낙선재본(180권 180책), 서울대학교 소장의 규장각본(180권 93책)은 완질이고, 연세대본(6권 5책)은 낙질본이다. 이 가운데 선본(善本)은 낙선재본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으나 선본(先本)의 여부는 규장각본과 낙선재본을 놓고 학자들마다 견해차를 보인다. 이 외에도 서울대 김진세 교수가 규장각본과 낙선재본을 교합하여 15권씩 1책으로 묶어 총 12책으로 구성한 독해본이 있다. 정병설(1998), 앞의 책, 26~35쪽. 이현주, 「<완월회맹연>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2-45쪽.

13) 남만을 정벌하려 떠나는 제갈량에게 마속이 했던 조언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마음을 공략하는 것이 상책이고, 성을 공격하는 것이 하책이며, 심리전이 상책이고, 병사를 동원하는 전쟁은 하책이다[攻心爲上 攻城爲下 心戰爲上 兵戰爲下].” 또한 손자의 손자병법 가운데 제3편 <모공(謀攻)> 편에서는 교묘한 전략으로 적을 공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곧 손자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을 최상의 전략으로 보았다. 여기서 손자가 말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심리전이며,

하는 방법의 하나로, 직접 적 또는 적국과 맞서서 대전(對戰)하지 않고 상대를 심리적으로 굴복시키거나 사기를 꺾어 싸울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책략으로 다루어지곤 했다. 오늘날 심리전이란 용어 또한 주로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간 상대국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적 방법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심리전(心理戰, Psychological Warfare)’이란 용어는 1920년 영국의 전략가 풀러(J. F. C. Fuller)가 1차 세계대전의 전훈(戰勳)을 분석한 논문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으며,¹⁵⁾ 이후 군사작전과 관련한 심리전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정의를 종합하면 “대적(對敵) 면에서는 선전, 선동, 포섭, 유언비어, 갈등의 유발 및 확산 등의 자극을 제공하여 적의 내분 및 사기 저하를 유발시키고, 대내적인 면에서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선전과 설득, 군중심리의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단결과 사기양양을 도모하며, 대외적인 면에서는 협상과 경쟁적 갈등과 위협을 조성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¹⁶⁾ 이렇듯 심리전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또 현대에도 국가 간 국방의 차원에서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기에, 이를 실제 문학작품 분석이나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재정 의할 필요가 있다. 문학작품에서 다루려는 심리전은 전술(前述)한 군사용어의 정의와는 구별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우선 상대하는 것이기에 감정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손자(김원중 역), 『손자병법』, 휴머니스트, 2016, 94~99쪽.

14) 심리전(心理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군사』 카테고리 내에서 다른 정의만 제시되고 있다. “『군사』 명백한 군사적 적대 행위 없이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력을 주어 자기 나라의 정치·외교·군사 면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전쟁.”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5) 임명현 외, 「현대 심리전 양상과 미래 심리전 발전방안」, 『군사연구』 제146집, 2018, 289쪽.

16) 이재윤, 『군사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2015, 537~585쪽.

문학작품에서 다루는 심리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군사작전상 활용되는 군사학의 심리전과 변별되는 지점을 갖는다. 첫째, ‘심리전의 목적’¹⁷⁾에 있어서 갖는 차이점이다. 군사학의 심리전은 무력 충돌로 인한 물리적 피해 상황¹⁸⁾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문학의 심리전은 심리전의 실행 주체가 타국이 되는 특정 개인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정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심리전의 목표 대상’에 있어서 차이를 지닌다. 즉 문학의 심리전에서 타국이 되는 대상은 국가, 집단, 조직과 같은 대규모적 차원이 아니라 특정 개인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군사학의 심리전은 그 목표 대상이 앞서 기술한 것처럼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범국가적, 범국민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셋째, 문학의 심리전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개인전(個人戰)의 성격이 강한 만큼 비공식적 차원에서 전개된다. 아울러 심리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목표 대상 인물에 대한 성격과 성품을 미리 파악해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상정한다. 반면 군사학의 심리전은 국가나 집단의 조직을 그 목표 대상으로 삼아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상대국의 정치, 외교, 군사적 측면에서의 행보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정치적 입장을 예측하여 심리전을 기획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문학작품 연구에서 심리전을 다룬 사례는 극히 드물었는데, 탁원정은 <쌍천기봉> 연작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분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존심과 관련된 분노’의 경우를 심리전으로 해석했다.¹⁹⁾ 곧 소월혜와 이몽창, 이미주와 철수, 위홍소와 이경문 등의 부부사이에서 상대방의 지존심을 건

17) ‘심리전의 목적’은 ‘작품 내 등장인물이 벌이는 심리전의 목적’과 ‘작가가 심리전을 서사전개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접근한다. 후자의 경우는 서사 전략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가능하다.

18)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살상과 물자 소비 등을 뜻한다.

19) 탁원정(2015), 앞의 논문, 229쪽.

드리는 냉담한 태도나 말로 맞서기 등을 ‘심리전’의 양상으로 본 것이다. 해당 논자는 심리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고, 작품 속 부부간의 팽팽한 긴장감을 갖는 관계를 심리전으로 언급했다. 다만 필자가 보기에 이들 부부간에 포착되는 심리전의 양상은 ‘신경전(神經戰)’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신경전(神經戰)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군사』 모략, 선전 따위로 적의 신경을 피로하게 하고 사기를 잃게 하는 전술 또는 그런 싸움”이란 뜻과 “경쟁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서, 말이나 행동으로써 상대방의 신경을 자극하는 일 또는 그런 싸움”²⁰⁾으로 두 가지 개념이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후자의 개념 정의에 입각하여 보면, 앞서 〈쌍천기봉〉의 부부간 자존심 대결로 벌어지는 일련의 관계 양상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신경전 또한 인물의 심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심리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필자가 다루려는 심리전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둘의 구분은 필요하다.

신경전과 심리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으나 섬세한 인물의 심리 묘사나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신경전은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말이나 행동을 통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 가깝고, 심리전은 자신이 가진 의도나 목적 달성을 위해 목표 대상을 향해 직접적인 무력이나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이나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을 뜻한다. 곧 신경전은 상대방과 마주한 상태에서 둘 사이의 심리적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정황이 마련되고, 심리전은 실행 주체와 목표 대상과는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신경전의 사례는 〈완월회맹연〉의 정인광과 장성완 사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²¹⁾ 아래 예문을 보자.

20)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1) 여기서는 심리전과의 대비적 차원에서 ‘신경전의 개념’을 살펴보는 의도가 있으므로

쳐서 태부인의 혼변 우으시를 천금으로써 밧고지 못할 낙스로 아는디라. 이에 한님과 당쇼저를 도라보며 함쇼 왈 현부 반다시 민망호여 흐려니와 즈정이 혼변 보고즈 호시니 으즈와 현부는 귀국을 혼변 시험호여 즈정의 혼변 우으시를 돕소오라. 한님은 비이슈명호디 당쇼저는 (중략) 또 한님으로 더브리 작판 호미 죽기도곤 슬흔 비로더 업귀 명호시며 태부인이 희안으로 혼변 보려 호시니 감히 말들 엇지 못호여 전혀 흥미업시 판을 살피지 아니코 한님의 다 버리물 기다려 도부인이 닛그는디로 버리기는 다 호여시나 (중략) 한님의 거동이 당시를 갖가이 더할스록 남의 집 상면치 못할 부너을 보는 듯 귀운이 석석호고 안석이 단업할 쓴 아니라 작판호여 승부를 결호도록 무심히도 눈들미 업스니²²⁾

해당 장면은 정인광과 장성완이 집안 어른들의 권유로 가족들 앞에서 바둑 두기를 겨루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부부는 바둑을 두는 내내 서로를 냉랭하게 대한다. 부부간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는 것이다. 정인광은 강퍽하고 그 아내 장성완 또한 만만찮은 성격이기에 이 둘의 냉랭한 관계 속에서 감지되는 분위기를 통해 부부간 심리적 대결구도를 읽을 수 있다.

이렇듯 신경전이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에게 냉담한 말이나 행동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이며 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한 마디로 신경을 거슬리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심리전은 자신이 염두에 둔 목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동원한다든가 자신이 아닌 다른 주변인들의 성격이나 성품을 파악해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본인이 애초에 의도했던 바를 달성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신경전은 상대방이 서로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 직접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반면 심리전을 계획한 주체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성격이나 성품을 파악한 후 이들을 이

심리전의 사례는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심리전의 구체적 사례는 3장에서 다룬다.
22) <완월회맹연> 42권

용해 타깃이 되는 대상에게 심리적 충격을 가하려 한다거나, 목표로 정한 인물에게 본인이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일을 의미한다. 심리전은 곧 자신이 타깃으로 정한 목표 인물 외에도 그 주변인들의 심리를 그 수단으로 삼아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얻고자 하는 고도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기술한 문학의 심리전과 일반적인 악인들이 벌이는 모략과는 어떻게 다른가? 악인들이 선인들을 모해하기 위해 마련하는 여러 가지 흉계나 계략 등도 목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칼을 겨누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성격을 미리 간파한 뒤 어느 정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에 따라 주변인들의 심리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라면 심리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²³⁾ 이러한 심리전의 양상은 <완월회맹연> 뿐만 아니라 다른 국문 장편소설에서도 발견될 것으로 생각된다.²⁴⁾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군사학의 심리전’과는 구별되는 ‘문학의 심리전’을 구성하는 요소의 항목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제시해본다.

23) <완월회맹연>에는 악인들뿐 아니라 선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심리전을 활용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다만 작품 내 심리전의 양상을 모두 다루기보다는 본 논문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심리전의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사례인 정인중과 여원홍의 심리전을 선정해 시론(試論)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동시대 산출된 다른 국문 장편소설에서 발견되는 인물 간 심리전의 양상을 살펴볼 것을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24) 심사 의견 중 <유효공선행록>에서 유효이 벌이는 심리전이 정인중의 심리전과 비견될 만하다고 비교 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해주셨으나, 유효의 심리전의 경우, 유효이 부친 유정경에게 형 유연을 모함하거나 정적(政敵)을 이용해 형의 입지를 무너뜨리려는 모략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유효이 벌이는 모략은 그가 직접 나서서 부친에게 형에 관한 험담을 하거나 거짓으로 형이 하지 않은 일을 고해바치는 양상으로 드러나기에 본 논문에서 다루는 심리전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유효이 그 형 유연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충만하다는 점에서, 형제갈등의 측면에서 <완월회맹연>에 등장하는 정인중의 형 정인성을 향한 심리적 정서와의 비교 논의가 가능할 듯하다.

- ㉠ 실행 주체의 특성
- ㉡ 목표 대상의 성격
- ㉢ 원인 상황의 성격
- ㉣ 심리전의 목적
- ㉤ 하위 전술
- ㉥ 성공과 실패

먼저 '㉠ 실행 주체의 특성'에서는 심리전을 계획하고 주도한 인물이 작품 내에서 보여주는 성격적 특징을 제시한다. '㉡ 목표 대상의 성격'에서는 심리전의 타깃이 되는 인물의 성격이 제공된다. '㉢ 원인 상황의 성격'에서는 실행 주체가 심리전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일으키게 되었는지 그 빌미가 된 사건이나 상황의 성격을 규명한다. 발생한 사건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는 곧 실행 주체의 심리적 특성을 훼손시키거나 자극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 심리전의 목적' 항목에서는 실행 주체가 심리전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예를 들어, 목표 대상을 제거한다거나, 목표 대상의 심리적 특성을 훼손 또는 자극하는 방식으로 얻어진 결과 값이 서술될 수 있다. '㉤ 하위 전술' 항목에서는 심리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마련된다. 곧 목표 대상의 심리적 약점 이용하거나 제3자의 심리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성공과 실패' 항목에서는 실행 주체가 기획한 심리전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른 서술자의 의도나 시각을 추출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 제시한 항목의 층급 개수나 내용의 성격에 따라 심리전과 신경전을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리전'을 본격적인 문학 연구의 용어로 차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범박하게나마 위와 같은 항목을 구성하여 인물 간 심리전의 일례로서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정인중과 여원홍의 심리전 전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인물 간 중층적 심리전의 전개 양상

이 글에서 다룬 인물 간 심리전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인중이 숙부 정염을 상대로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벌이는 치밀한 심리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원홍이 자기 딸 여씨의 적국인 정성염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하는 심리전이다. 이 두 가지 심리전은 정인중이 애초에 짜놓은 심리전의 과정 속에서 여원홍의 심리전이 삽입되어 전개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혼인도 하기 전인 자신의 딸이 외간남자 그것도 유부남과 화상을 신물로 주고받았다는 스캔들은 그간 정염이 굳게 지켜왔던 이념적 신념과 지식 훈육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안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정인중의 의도는 숙부 정염이 이러한 괴로운 상황을 겪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심리전을 벌인 일이나 이는 곧 여원홍의 딸 여씨의 적국을 만들게 하여 여원홍으로 하여금 또 다른 심리전을 계획하게끔 하는 중층적 심리전²⁵⁾의 양상을 보여준다.

1) 정염을 타깃으로 한 정인중의 심리전

정인중이 숙부 정염을 목표 대상으로 하여 심리전을 계획한 이유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성격적 특성과 숙부 정염이 그간 보여준 이념적 강직함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²⁶⁾ 정인중은 가문에서 인정받지

25) 정인중이 벌이는 심리전 내에 여원홍의 심리전이 삽입된 형태로 진행되는 데도 ‘중층적(重層的) 심리전’으로 보는 이유는 이 두 개의 심리전을 실행하는 주체가 다르고 그에 따른 목적과 타깃이 되는 대상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서사전개상 정인중의 심리전이 여원홍의 심리전을 포괄한 것처럼 그 층위가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 각 심리전의 전개 양상은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대등하게 배치하여 다루었음을 밝힌다.

26) 정염은 정인광과 그 성격이 비슷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곧 불의(不義)한 일을 겪거나 의롭지 못한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 조절에 취약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장헌의 뒤통이를 매우 꺼리며 싫어하여 그와 엮이는 것을 참지 못한다. 이념적

못한 아들로 그의 내면은 열등의식과 콤플렉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그의 성격 형성의 동인이 된다. 그는 반윤리적 성격을 지닌 인물로서 온갖 패륜적인 일들을 저지르며 집안의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²⁷⁾ 그러한 그를 매번 가족들 앞에서 훈계하거나 그가 듣기에 귀에 거슬리는 말만 하는 숙부 정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정인중은 기회를 틈타 숙부에 대한 복수심에 심리전을 벌이게 된다. 보통사람이라면 그냥 웃어넘겼을 농담도 정인중은 그냥 넘기지 못한다. 열등감으로 가득 찬 그는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 훈계의 말을 건네거나 농담 섞인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를 향해 놀리거나 비웃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아두면서 언젠가 기회를 틈타 그를 해코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다.

정인중이 불만을 품고 복수하려는 대상인 숙부 정염은 작품 내에서 희담꾼²⁸⁾으로서의 면모를 지니며 누구에게나 친화적인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가벼운 인물은 아니다.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바른말로 훈계하고, 좋고 싫음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모두 그의 이념적으로 강직한 성격적 특성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정염이었기에 조카 정인중의 바르지 못한 행실을 보면 훈계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데 정인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숙부를 겨냥해 흉계를 계획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정인중은 “악심과 요장을 번뒤쳐 성염소져 희흔을 착의하여 경조공의 이즈를 쾌복고져”²⁹⁾ 결심하고, 숙부 정염의 딸 정성염을 추잡한 소문에 휩싸이게 만들기 위해 주변인을 물색한다. 정인중은 평소 불만을 가졌던 정염에게 복수하고자 그 신변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대신 그가 애지중지하는 딸 정

으로 바르지 못한 장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27) 한정미(2021), 앞의 논문, 174쪽.

28)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여성 관련 희담(戲談) 연구: 남성 희담꾼 ‘정염’과 여성 희담꾼 ‘상부인’ 간의 희담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 제25권, 한국고전여성문화회, 2012, 273~310쪽.

29) 〈완월회맹연〉 52권

성염을 이용하기로 한다.

정인중은 우선 정염이 장헌과 그 가족들을 혐오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장헌의 아들 장세린을 흥계에 동원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장세린은 여씨와 혼인 후 신혼 첫날부터 외박을 일삼았다. 신부 여씨가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의 흉물스런 외모를 지녔기도 했으나 그 성품 또한 괴팍했기 때문이다.³⁰⁾ 평소 자신이 염원하던 신붓감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여씨 때문에³¹⁾ 밤낮 밖으로만 나돌며 술에 취해 방황하기를 일삼았다. 그런 장세린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정인중은 어린 동자를 시켜 정성염의 얼굴을 그린 미인도를 장세린에게 전달한다.³²⁾

우연히 미인도를 얻은 장세린은 어린 듯 홀린 듯 화상(畫像) 속 미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집안사람들 몰래 화도(畫圖)를 꺼내보고 숨겨놓기를 매일 같이 하면서 실재하는 여인인지, 그렇다면 속히 찾아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점점 미인도 속 여인을 사모하게 된다. 그러던 중 여느 때와 같이 미인도를 들여다보는데 정인중이 급작스레 장세린의 처소를 방문한다. 곧 정인중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 장세린의 마음을 더 안달나게 만드는데, 다음의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정인중이 얼마나 교묘하게 장세린의 심

30) 이날 당공조 세린이 신부의 흥협누질과 광탕난어를 중간 보고 드르미 심니의 밋고 분흐미 경각의 칼홀 드러 일천 조각의 뼈호러도 흥 조각 추연흥 의시 업술지라. <완월회맹연> 48권

31) 평성 비궤을 바라는 뜻이 고산태악 갖던 바로 범범 용상인도 맞나를 엇지 못흐여 천고의 듯디 못흐던 흥상박식의 광탕누인을 우흐니 부명의 괴구흥과 일성의 괴로오미 이에 지는 밋지 업는지라. <완월회맹연> 48권

32) 일일은 삼상이 옥운 등으로 더브러 단취 달난이러니 날이 저물고 즐기미 극흐미 옥운 등이 맛출 유고흐여 물너가를 청흐니 공지 산상의셔 물을 달녀 밤 시오고조 흐여 옥운 등을 도라보니고 덩히 꺾의 천니구를 그르고져 흐더니 흥연 일개 소동이 밋그로셔 썰니 드러와 고두 비복하고 금스보히 뵈 일복 화도를 밋드러 드리거닐 <완월회맹연> 49권

리를 조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시시의 정공즈 년둥이 와시를 니르지 아니코 소리 업시 기호 입실하니 삼낭 이 바야흐로 화도의 정신을 빼아 사람의 니왕을 알녀 아니 하는지라. 년둥이 비로소 소리하여 굴오디 오리 현형을 보지 못하니 비린디밍이 동하여 니르렀더니 손의 오물 브더 주인이 전브동하여 아른 체 하며 업스니 덩히 무류함을 형용치 못하는 가운데 형의 제를 향한 뜻이 데의 형을 우림만 가지 못함을 유감하노라. 이리 니르며 나와 화도를 잠간 보고 변식 경의하여 측량치 못하는 거동이 이시니 당성이 년둥의 소리를 듣고 쏘흔 놀나 빗비 화도를 거두어 안상의 언고즈 하니 제 발셔 보기를 즈시하고 놀나며 이상이 녀키는 거동이 현저하니 (중략) 년둥이 오히려 경혹하는 빗출 덩치 못하여 굴오디 문져 말은 회언이어나와 형의 중심 목도하여 정신을 일코 디하였던 화도 어디셔 난 거시뇨. 쇼제 굿터여 므를 일이 업스디 그 화둥 사람의 골상이 심히 눈 익으니 의아함을 니키지 못하여 빗비 곡직을 알고즈 하노라. 당성의 도동의 말을 니르미 허탄하여 브러쳐 답하디 오육일 전 맛춤 여러 화도를 팔 니 잇셔 그 가운데 미인도 일복이 치해 더욱 비상허거늘 나의 성품이 셔화를 도히 녀키는 고로 우연이 산 비로디 출처 꼭디야 어이 알니오. 다만 화둥 미인이 시체 복식이니 넷 그림이 아니오. 시절 사람인가 시브디 근파는 파던 아히도 모르노라 하니 다시 못지 못하고 심히 울울하여 지삼 보는 비러니 이봐 그림을 보는 딴딴 사람을 아노라 하니 이 원간 엇던 사람이뇨. 모로미 한번 이르를 앓기지 말나. 년둥이 넓 속의 너허 두고 가마니 굴오디, 상운가 미저의 협둥의 문승의 화상 잇심도 괴이헌 변이어늘 상당 미저의 화상이 문승의 슈둥 기해 되엇는뇨. 실노 측량치 못할 일이다. 이리 니르며 므옴과 조어하는 체하여 당성은 못듯는 가 녀이고 당성의 못는 바를 홀연 제쳐 굴오디, 형이 미인도를 가져 딴짓 사람을 디하디시 황홀 침혹하며 심히 우어빌시 쇼제 거긔 화둥 스람을 눈 녀다 하여 화도의 출처를 즈시 알고즈 하미러니 형이 그림을 살지언정 꼭디을 순전이 이지 못하는가 시브니 쇼제 더욱 엇지 알 길히 이시리오. 원컨디 다시 니라. 쇼데 다시 구경이나 하고 가리라. 당성이 년둥의 가마니 하는 말을 입의 다 듯고 화둥 미인을 년둥은 알오디 짐긔 제치는 바를 보미 심중의 착

급하여 화도를 다시 너여 난들의 얽히 펴고 간절이 뜨러 왈, 이뵈 처음 이 그림을 보고 놀나는 기식이 반다시 화등 사름을 아는 비라. 한갓 희언으로 꼭디을 알고즈 함미 아닌 줄 모로디 아니커늘 엇지 경직의 말을 달니 하여 이지 못함을 췌치느뇨. 이 그림이 만일 스문 규녀의 화될던디 니 슈중의 두고 슈야로 더함미 심히 불가하니 혼번 근파를 드르면 즉시 이보를 주고 다시 생각 지 아니리니 청컨디 이보는 잠간 니르라. 니 마음이 본디 급거하여 불관흔 거시 라도 알고 시븐 거슬 모르고 이시려 하면 울울함미 맞출 듯 하니 이보는 천우지 간의 너외함을 두지 말지어다. 난들이 그림을 볼스록 경의 난축하는 스식이 출어면모하여 묵묵히 말을 못하더니 당상이 너하여 간절이 뜨르물 듯고 순순이 췌쳐 갈오디, 쇼제 만일 화등 사름을 알오미 잇실진디 그 혼번 니르미 뜨어서 둥난하여 맞춌니 은니하고 설화치 아니리오마는 과연 이지 못함미 형과 일반이라. 다만 화도의 괴이함을 선탄하거니와 다뭇 형과 쇼제 남즈의 몸으로써 너즈의 화도를 더함미 불가하니 거두어 간사하거나 쇼화하여 업시 함미 맞당호도다.³³⁾

정인중은 짐짓 놀라고 당황하는 척하며 장세린이 갖고 있는 미인도 속 여성이 자기 눈에 익숙하다느니, 자기가 동자를 시켜 장세린에게 건넨 화도임에도 모르는 척 그 출처를 묻기도 한다.³⁴⁾ 그러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상운각 누이(정성염)의 죽첩에도 장세린의 화상이 있던데 참 우연의 일치라며 의아해 하는 상황을 연출한다. 온갖 신경이 정인중에게 쏠려 있을 장세린이 그의 읊조리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리 없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장세린은 정인중에게 미인도를 활짝 펴놓고 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33) 〈완월회맹연〉 49권

34) 장세린에게 어린 동자로 하여금 정성염의 화도를 전달하게 한 것은 49권에서는 밝혀지지 않는다. 그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앞서 제시한 이후 52권에서 이 사건이 정인중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는 〈완월회맹연〉 작가의 서사 전략으로, 일단 사건을 먼저 제시한 후에 앞서 벌어진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나중에 밝힘으로써 독자가 긴장감과 호기심을 갖고 서사를 따라가도록 설정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누구인지 자세히 말해달라며 간절히 애원한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이제 정 인중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장세린을 대해서는 끝까지 놀랍고도 난감하 다는 기색을 드러내며 모른다고 시치미를 댄다. 그러면서 남자가 되어 여 인의 화도를 보는 것이 불가하니 불에 태워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며 강수 를 두기에 이른다.

이후 장세린은 “(정인중의) 괴식의 슈상함과 상운각 미져라 분명이 드러 므로 심신이 낙동하나 디리히 못지 못하여 굶치고 다른 말을 시작하여 한 화하다가 정공직 도라가면 당성이 다시 화도를 가져 이 반다시 정문 녀즈 의 화된다 시브거니와 나의 화상이 또 저곳의 잇다 하니 그는 엇진 일인 고?”³⁵⁾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미인도 속 여인의 행방을 수소문하기에 이른다. 결국 정겸의 아들인 정인의를 통해 미인도 속 인물이 정겸의 딸 정성염 임을 알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식음을 전폐하기에 이를 정도로 정성염에 대한 연모의 정을 키우다 심각한 상사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까지 한다.

정인중은 모친 소교완이 모르계꿈 이번 사건을 진행시키는데, 시비 초아 를 동원하여 아래와 같이 일을 꾸민다.

저의 심수를 모친게 고치 아냐 녹빙과 초아를 당부하여 화상으로써 당성 속이틀 불출구의하고 임의 당공즈의 화상을 일으우고 또 필체를 모셔 즈획이 갖기를 공부하미 지조 절등흔 바의 능치 아니미 업는지라. 셔너장 죠회를 흐리 오미 창용 옹호 갖튼 필획이 완연이 당슴냥의 슈적이라. 일슈 시를 지어 남녀 의 화상을 빗고와 기리 신물을 습는 뜻을 포하여 음일 방탕하물 시의 절절이 낮타니여 슝으로 하여금 한번 보미 희분 타비하물 마지 아니케 하여 화교의 험가지로 모라 간스하엿더니 이날 초아를 불너 그옥흔 곳의셔 기용단을 먹여 성염소저의 비즈 빵난이 되엿는지라. 닌중이 손벽쳐 묘코 묘하를 일크라 화도 를 쥬어 상운각 중의 가 여츠 여츠하라 하니 초아 슈명하여 운각의 가니 이

35) <완월회맹연> 49권

씨 빵난은 소저를 되서 정당의 잇고 소저의 유량은 이공즈의 병후를 보고 황황
하여 운각을 직회지 못호고 아시비 슈인이 이에 이시디³⁶⁾

위의 장면은 장세린의 얼굴을 그려 화상을 만들고 그의 필체를 연구하여
진짜와 다름없게끔 본뜬 글을 써서 신물(信物)을 조작한 정황을 보여준다.
이후 시비 초아에게 변용단을 먹여 정성염의 시비(侍婢) 쌍난으로 둔갑시
킨 뒤 장세린의 화상을 정성염의 처소에 몰래 갖다 놓고 오라고 명한다.
정성염의 처소에 간 초아는 구석에 있는 대나무 상자에다 화상을 넣고 돌
아온다.

이즈음 정인중은 정삼과 정염, 정겸이 모여 정성염의 혼사를 의논하는
과정을 엿보게 된다. 이때 정염은 딸 정성염이 아직 정해진 혼처가 없음을
걱정하고 자신은 뛰어난 군자를 사위로 맞이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
는데, 이러한 과정을 눈여겨보던 정인중은 숙부 정염을 더욱 밋게 생각하
며 다음과 같은 일을 꾸민다. 곧 정인중은 녹빙에게 변용단을 먹여 장씨
부중의 충직한 시비 연월로 둔갑시킨 뒤 장세린이 경조 정염의 딸과 사통
하여 서로의 화상을 신물로 주고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여씨
부중 시비 맹파에게 전하게 한다. 이에 맹파는 여원홍과 만씨에게 가서 들
은 바를 그대로 이룬다.³⁷⁾

36) <완월회맹연> 52권

37) 경조 점두 유유하며 턱서호는 뜻이 일일도 방하치 못호나 그 가합호 즈를 엿지 못호
미 심히 울을 불낙호는지라. 닌중이 더욱 밋이 녀여 이에 불미지스틀 지어 녀원홍의
귀에 도라가게 호니 이 니른 스이로 단녀 전호는 즈는 다르 니 아니라 녹빙이 변용단
을 숨켜 당부 노냥상이 되어 녀부의 왕니호며 밋파를 더호여 거즈 솟공즈의 외입호를
슬허호는 체호고 가마니 정경조의 녀아로 경을 두어 서로 화상을 갖쳐 신물을 숨는
지경의 미쳐시물 현연 탄아호여 다시 당부호디 여츠지스를 불출구외호여 전호 지
죄를 엿게 말나 호니 밋패 점두호고 녀시 드르면 므슴 거죄 이실가 호여 추밀과 만시
만 잇는 씨를 타 가마니 고호니 <완월회맹연> 56권

2) 정성엄을 타깃으로 한 여원홍의 심리전

여원홍의 심리전은 앞에서 다룬 정인중의 심리전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 중층적으로 제시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원홍은 국구(國舅) 여형수의 맏아들로,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지금은 벼슬이 추밀사에 이르러 부귀와 권세가 조야에 혁혁한 인물이다. 그는 영악하고 교활한 성격을 지녔으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면모를 보인다. 그에게는 시집 못 간 딸 여씨가 있었는데, 그녀는 흉물스런 외모를 지닌 데다³⁸⁾ 성격 또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괴팍했다. 이러한 딸을 두고 혼처(婚處)를 고민하던 여원홍은 권력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 부귀와 권세를 좇는 장헌의 심리를 진작부터 간파했기에 자신의 딸에 대한 정보는 건네지 않은 채 장헌을 꺾어 그의 막내아들인 장세린과 자신의 딸 여씨를 혼인시켜 서로 시돈을 맺자고 제안한다. 장헌은 뜻밖에 당대 권력자인 여원홍에게서 이러한 제의를 받고는 가족과 의논하기는커녕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선뜻 혼인 제의를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를 기회로 삼은 여원홍은 장헌이 나중에 탄말을 하지 않을까 하여 곧장 길일을 정하고 혼서를 주고받은 후 일사천리로 혼례를 진행시킨다.³⁹⁾

38) 홀연 고이혼 숲 소리 귀가의 들니던 완연이 녹월염턴의 장기를 메운 쇠 숲 소리 갓튼 바의 죽적이 용둔하고 난잡하여 정함 옥난이 움죽이고 합환 교석의 밑니여 정계호를 엇지 못하고 보경 괴회호미 밋킨 듯출 닛글며 스오나온 일희를 붓드러심 궂툃을 의아 하여 홀번 빵광을 흘니 쓰미 허다 시이 우두나출을 전츠 후응하여 작성을 가리고 먼스를 께히 벗기지 아니실 쓴 아니라 그 일신 두면을 다 보옥으로 엷고 금쥬로 쑤며 션광이 도요하고 보치 휘휘하나 그 녕흔한 테제와 험괴흔 상모는 이 ㄱ온디 더욱 표표하여 흥참하고 취루호를 비할 곳이 업스니 세간의 엇지 이갓튼 작인과 이갓튼 흥상이 이시를 뜻하여시리오 <완월회맹연> 48권

39) 국구 녀형수의 당즈 녀원홍이 쇼년 등계하여 당금의 작승고하여 추밀스의 니르고 권위 당당하여 도야를 기우리는 바로 일녀를 두고 당공즈 세린의 탁출 비상호를 익이 아는지라. 흥선호를 니끼지 못하여 당고의 혼즈 있는 썩를 타 니르러 닛출 디하여 호언으로 은근히 인오의 듯터오를 띤즈 서로 즈녀를 밧고물 간절이 청호니 당공의 부귀를 탐혹과 위권을 취호는 쥬세 비린지심은 평성의 큰 병이 되어 잘 곳치지 못호

여원홍의 딸 여씨는 장씨 부중에 시집 온 첫날부터 그 흉측한 모습으로 온 집안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게다가 신랑인 장세린은 혼례를 치르던 날 식장에서 여씨를 한번 본 이후로 그녀와 단 한순간도 함께 있기를 꺼렸으며 결국 신혼 첫날밤에도 신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부친 장현의 성급하고 경솔한 결정으로 인해 자신이 바라고 꿈꾸던 신부감(40)을 만나지 못한 채 여씨 같은 흉한 외모의 여자를 만난 것에 대해 앞날을 비관하며 술집에만 들락거렸다. 그렇게 술에 취해 방황하며 지내던 장세린은 정성염의 얼굴이 그려진 미인도를 얻게 된 후부터 그것을 보며 상사병을 앓는다. 그림 속 미인이 바로 정염의 딸 정성염인 것을 알게 된 장씨 부중사람들은 장세린의 병세가 심각해지자 대책을 마련하기에 나선다.

때마침 여원홍과 그 처 만씨는 시비 맹파로부터 사위 장세린이 정염의 딸 정성염과 화상을 신물로 주고받았음을 듣게 된다.

만시 차언을 두고 가장 분분하여 왈 아네 비록 용식이 험괴하나 닳타는 죄과 업시 당세린이 신혼 초일의 박디 티심하여 지우금일하고 이제 정염의 녀즈로

는지라. 녀츄밀이 국의 지오. 황후의 제남으로 문달 존귀함미 엇기 어려운 인친이라 하여 규슈의 미박 현불은 심각도 아니코 나지 구흔하는 덕의를 도로혀 황공 치사하니 녀원홍이 당공의 등무쇼쥬함을 아는지라. 그 쾌흔 허락을 어드민 혹 다시 변함미 이 실가 두려 듯 우히셔 녹합 정상일을 턱하니 낭길일이 디격 일순이오 형빙이 우명일이라. 드더여 덩일노 성네함을 당부하니 당공이 녀츄밀의 의려 만호를 개연하여 웃고 왈 당뵈 혼변 말을 내미 죽을 일이라도 곳치지 아니코 빅년 안히 변함미 업술 거시어 늘 호말며 피츠 즈녀를 가져 결승을 덩함미니잇가. 명공이 이러툃 밧바 아니시면 복의 당지 도라오기를 기다려 계오의 가뵈를 의논할 거시로디 명공이 심히 밧비 녀이시고 상면 정약으로 일순이 격흔 혼스를 오히려 그릇될가 의려하시니 이는 복을 신스로 아디 아니시미라. 형빙이 우명일이어니와 명공의 의려를 프러 보시는 바의 혼서를 쁘스이다. 설파의 디핍을 나와 혼서를 쓰고 일변으로 주찬을 나와 빈취 즐기물 마지 아니니 <완월회맹연> 48권

- 40) 덕요를 어지지 아니타 함미 아니라 용모의 더러오미 잇는 준걸의 꺾 지을 비 아니오. 문회를 곱지 아니타 함미 아니라 절형의 나즈라오미 개결흔 군즈의 타비홀 비니 덕이 잇스나 식이 갖지 아닌죽 죽히 일크롭죽 함미 업고 식이 이시나 덕이 잇지 아니면 가히 더브러 동노할 비 아니라 함미 <완월회맹연> 48권

허다 음일 난탕흐미 인심의 통히홀 시 그 비지 참지 못흐여 밍파의게 전흐미니
우리 비록 쌀을 잘못 나흔 허물 이시나 여츠 분히흐를 함구 불출흐여 탕음 너즈
로 도히 인연을 일우게 흐미 피존흐며 용널흐지라. 상공이 맛당이 소유를 천정
의 쥬달흐여 정녀의 음교흐미 탁문군의 더으고 교량이 화간을 입니니여 죄악이
창져흐니 흐로도 상문 교와로 처흐지 못흐리니 풍교를 가다담아 그 죄를 붉히
흐쇼셔⁴¹⁾

여원홍의 처 만씨는 맹파로부터 사위 장세린이 자신의 딸 여씨는 신혼
첫날부터 박대하고, 정염의 딸 정성염과는 신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듣
고는 분노로 가득 차 남편 여원홍에게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하소연한
다. 아울러 험괴한 외모의 딸을 낳은 죄는 인정하나 음탕한 정염의 딸과
사위가 놀아나는 꼴은 용납할 수 없음을 말하며 이러한 전후사정을 천자에게
아뢰어서 정성염의 음란한 죄를 밝혀야 한다고 재촉한다. 이에 여원홍은
처 만씨에게 다음과 같이 선불리 행동하지 말 것을 일러준다.

정념은 당세 명현으로 위인이 관속 정디흐며 님도 처세의 표리 일청흐여
겨울의 솔 갖고 스시의 봄 갖트여 음스 압일흐른 원슈 갖치 피흐며 기즈 냥
인이 도괘 농방흐여 봉각의 명필 학스라. 문당 괴절이 부형 즈데어늘 청명과
물망이 쥬야를 드레니 일세 경양흐는 비라. 엇지 의계의 심훈과 님홍의 누의로
그 너즈 홀노 음스 불인흐며 교활 난탕흐리오. 흐물며 녀의 박용 누질노 성정
조츠 운순흐를 엇지 못흐시니 구가의 머즈는 스이의 괴악이 님타날 썸이언정
상하 인심이 도라지지 아닐 비어늘 당부 양냥이 신근이 니현흐여 정성되물
낫토며 밍파를 더흐여 이 말을 니르고 가는 거시 굿트여 녀아를 위흐 썸인
줄 엇지 알 거시라 상문 교아를 가비야이 히흐여 즈셔히 아지 못흐는 바로써
천정을 어즈러이며 브절업시 슝과 결원흐여 필경 썸감기를 엇지 흐리오.
패악한 아히 이 말을 드르면 슝체를 모르고 거쥬 더욱 히이흐리니 부인은 모로
미 슝지 말나.⁴²⁾

41) <완월회맹연> 56권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여원홍은 정염의 성격이 어떠한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부인 만씨에게 정염의 자식들 또한 훌륭하게 자라 온 세상이 우러러보고 있는데, 홀로 그 딸만 음탕하며 교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단지 시비 맹과가 전하는 말만 곧이듣고 딸 여씨를 위한다고 일을 도모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런 다음 부인 만씨에게 자신의 계획을 던지시 말해준다.

친히 본 비라도 날니 발설하미 니치 아니커늘 무식흔 비빅 의상 업는 말을
 흑히 듯고 일을 혼변 그릇하미 그 익달오미 비복을 물기의 이신들 능히 맞출소
 나 너 다만 안즈셔 그 친스를 회지어 당즈의 아녀를 박히 혼는 한을 설하리
 라. 만시 비로소 안식을 정하며 그 작회흔 씨를 트룬디 추밀이 소왈 당즈와 정녀
 의 스정을 두미 과연 전연과 갓들지라도 당가 부형은 이제 드룬들 각별흔 죄칙
 이 이시리오마는 스름이 이 말노씨 권하여 기즈의 뜻을 조츠 친스를 성전하
미 울타흔죽 저 중무소주흔 인식 만히 그러히 녀이고 정가의 위고 권중흔를
흡모하여 유공불급하여 혼인을 구하려니와 정염은 적상흔 성정시오 기결흔
위인으로 곁하여 네중 광명하여 혼우 불업흡과 니도하니 기녀의 음악하미
외인을 화간하는 지경의 이시를 드룬죽 반다시 썰니 죽여 문호의 욕을 더으
지 아닐 거시오. 비록 지원 극통흔 의미하미 잇셔도 허명이 불측흔고 당즈의
 눈의 걸녀시를 통회하여 순히 친스를 일우지 아니하며 별단 처치 잇스리니
 이 마디의 정녀의 스지 못하미 십분의 팔구나 될지라. 나는 잠잠하여 간섭지
 아닌 바의 녀아의 적인은 즈연이 소제하미 되리니 엇지 묘치 아니리오. 만시
 청파의 이연 회열하여 맛당흔를 일코고⁴³⁾

위의 인용문은 여원홍이 ‘장헌의 쫓대 없이 기회만 엿보아 권력에 아첨 하려는 성격’과 ‘정염의 강직하고도 냉엄한 성격’을 간파하고 이를 이용하

42) <완월회맹연> 56권

43) <완월회맹연> 56권

여 딸 여씨의 적국인 정성염을 없애버리려는 흥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염의 끈은 성정으로 미루어보건대 자신의 딸이 유부남과 신물을 주고받으며 사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속히 딸을 죽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젓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 여원홍은 곧 장헌에게 장세린과 정성염이 몰래 서로의 얼굴을 그린 화상(畫像)을 신물로 나눠 가졌으며, 이로 인해 아들 장세린이 상사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정염에게 전하라고 권유한다. 이에 어리숙한 장헌은 여원홍이 이르는 말을 수궁하며 전후맥락을 따져보지도 않고 곧장 정염에게 찾아가 여원홍의 말대로 자기 아들 장세린과 정성염이 신물을 주고받은 사이라는 말을 전한다.

장헌으로부터 딸 정성염이 장세린과 신물을 주고받은 사이라는 말을 듣게 된 정염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딸을 죽일 것이라 말한다. 이어 그 두 아이가 서로의 화상을 주고받게 된 상황을 자세히 말해보라고 장헌을 다그친다. 이에 장헌은 여원홍이 전한 말만 듣고 온 상태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다가 평소 장세린과 친분이 있던 정인홍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정염은 큰아들 정인홍을 불러와 장세린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를 들며 가혹할 정도로 매질한다.

불초조를 중치흔 후 녀아를 죽여 니 마음의 거림흔 거슬 업시호고 당가
탕즈의 음일흔 바라를 끄쳐 이 분을 만일이나 풀니니 나의 심흉의 불이 니는
닷 흐거늘 현대 엇지 이 마음을 모르고 브절업시 말니기를 슈고로이 흐느뇨.
도라 당공을 향하여 왓 향긔 닌홍다려 하던 말을 형이 쏘흔 드러실지라. 녀낭을
스괴미 한 되나 음일 난탕지스는 전혀 아지 못흐는 닷 하니 인지 벗을 위하여
아비를 니외튼 아니리니 형이 쏘흔 녀운을 디하여 못기를 명상이 하라. 언필의
다함 고찰하여 곳칠 뜻이 업스니 임의 스십장을 다하여 피육이 후란호고 뉴혈
이 옷술 즈으니 경조 원간 즈데를 교훈하미 크게 업숙하여 증석의 과도흔
성이 잇는지라. 제즈의 우연흔 허물이라도 유연이 관스하미 업스니 학스 등
이 즈쇼로 티벌의 알프를 바다 혹 혈육이 상흔 적이 잇던 바의 공의 진노하미

오날날 갖툼이 업고 장벌의 엄흐미 쏘 금일 갖툼이 업스니⁴⁴⁾

위의 인용문에서 앞부분은 분노한 정염이 아들 정인홍을 불러와 매질한 후 더러운 소문에 휩싸인 딸 정성염을 없애 자기 마음에 거리끼는 바를 없애겠다며 자신을 말리는 동생 정겸에게 하는 말이다. 이후 장헌을 향해 인홍이도 이러한 화상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니 장세린에게 전후곡절을 알아보라고 말한다. 위의 인용문 하단 밑줄 친 부분에서는 정염의 성격이 증석의 과도한 성질을 지녔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증석(曾皙)은 바로 증자의 아버지인데, 그는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아들인 증자를 무참하게 매질했다고 한다.⁴⁵⁾ 그런 증석의 과도한 성질을 지닌 정염이었기에 어렸을 때부터 정인홍은 아버지의 훈육을 받을 때에도 잘못을 범하면 피가 흐르고 피부가 상할 만큼 맞곤 했다. 그러나 오늘처럼 엄혹하게 맞은 적은 없었기에 정인홍은 부친의 분노의 크기가 그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임을 짐작했다.

정염은 그간 자신이 굳건히 지켜왔던 당대 이념에 대한 자신의 신념대로 지식들 또한 이념적으로 바른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딸 정성염이 추잡한 소문에 휩싸여 재상가 집안의 규수로서는 차마 입에도 올릴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목도하게 된다. 이후 정염은 장세린과 정성염이 주고받았다는 신물의 실체인 화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딸 정성염을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장헌의 며느리, 그것도 장세린의 첩으로 들어가게 할 바에야 차라리 독약을 먹여 죽이느니만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정염은 지금까지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온 당대 이념

44) <완월회맹연> 56권

45) 증석(曾皙)은 증삼(曾參)의 부친으로, 공자(孔子)의 제자이다. 사생(死生)을 달관하여 계무자(季武子)가 병이 위독한데도 그 문에 기대어 서서 노래를 불렀다 한다. 『예기(禮記)』 「단궁(檀弓)」 편 下.

에 입각한 도덕적 신념이 어그러지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어 정염은 독약을 가지고 딸 정성염의 처소로 바로 가서 직접 약을 먹이려 한다.

여기서 딸 정성염에 대한 정염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소 딸의 성품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을 정염이 단지 화상을 발견했다는 정황만 가지고 딸을 몰이붙이는 것은 성급한 대응이었으며, 그는 적어도 딸 정성염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또한 정염은 누구보다 딸을 믿었어야 했음에도 장헌에게서 장세린의 화도 이야기를 듣고 또 딸아이의 유모 방에서 화상을 발견하고는 자초지종도 들어보지 않고 사실 확인도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해버리면서 분노로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정염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나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위해서 또한 딸 정성염을 위해서⁴⁶⁾ 딸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소현성록>에서 실절한 딸 교영에게 가문을 더럽힌 명목을 씌워 명예살인을 집행한 양부인의 경우와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으나, 적어도 양부인은 스캔들의 당사자들로부터 사실 확인을 한 상황에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하라고 명령했다는 점에서 정염의 행동과는 비교된다.⁴⁷⁾ 다만 <완월회맹연>에서는 정성염의 화상 스캔들이 누군가의 술수로 인해 벌어진 일임을 깨닫게 하려는 주변 식구들이 정염을 만류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가 마음을 진정하고 딸을 죽이려던 일은 일단락되고⁴⁸⁾ 여원홍의 심리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46) 딸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정염이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신념에 따른 결정이지 정성염을 위한 결단으로는 읽히지 않는다.

47) 서주에서 교영을 만나기 위해 소씨 부증을 찾은 유장은 소경을 만나 자신이 누이 교영과 운우의 정을 맺고 3년간 사통한 사이임을 밝혔다. 이러한 일을 양부인이 알게 된 후 그녀는 딸 교영을 불렀고 사실 확인을 거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딸에게 독주를 마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값을 치르도록 한다. 정선희, 조혜란 역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현성록> 1』, 소명출판, 2010, 52-57쪽(원문 403~407쪽).

이상에서 논의한 증층적 심리전의 전개 양상을 앞서 2장에서 마련한 항목으로 도식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정인증이 계획한 심리전의 전개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면 여기서 여원홍의 심리전은 정인증이 벌인 심리전 가운데 ㉠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심리전인 것이다.

<p><정인증의 심리전></p> <p>㉠ 실행 주체의 특성 : 정인증의 열등의식, 콤플렉스</p> <p>㉡ 목표 대상의 성격 : 정염의 이념적 강직성</p> <p>㉢ 원인 상황의 성격 : 정염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인증을 혼계</p> <p>㉣ 심리전의 목적 : 정염의 이념적 강직성을 훼손</p> <p>㉤ 하위 전술 : 정염의 장헌에 대한 혐오를 이용하여 정성염을 모함에 빠뜨림</p> <p>→ 구체적 실행방법 : 혐오 이용, 모함의 성격, 심리 조정을 위한 말하기 방식</p> <p><여원홍의 심리전></p> <p>㉠ 실행 주체의 특성 : 여원홍의 영악하고 교활한 성격</p> <p>㉡ 목표 대상의 성격 : 정성염의 순종적 성격</p> <p>㉢ 원인 상황의 성격 : 시비의 전언(傳言)</p> <p>㉣ 심리전의 목적 : 정성염의 제거</p> <p>㉤ 하위 전술 : 장헌과 정염의 심리와 기질을 이용</p> <p>→ 구체적 실행방법 : 장헌의 속물적 기질과 정염의 강개한 성격 이용</p> <p>㉠ 성공과 실패</p> <p>㉡ 성공과 실패</p>

48) 정겸이 정염의 과도한 행동을 만류하면서 했던 말은 다음과 같다. “녀원홍이 간능하고 교활하나 스테를 모로논 인물이 아닌 바의 공연이 상문규슈를 누설의 잠으디 아니 하리니 대개 이상호 요인이 간교호 뵈로 달으롤 희코즈 불미디스를 너가의 들녀 어즈럽기를 취호며 녀원홍은 만니 형당의 뜻을 헤아려 당헌으로 호여금 그러툷 구친호여 형당의 분노롤 날위여 친시 성전치 못호게 작회호미니 형당이 당가와 결친홀 뜻이 아니 계실단디 달으롤 공규의 폐륜홀 법은 있거니와 너가의 뵈를 맞쳐 달으롤 죽이시미 호갓 잔인혹독홀 쓴 아니라 디혜원하치 못호시미니이다.” <완월회맹언> 57권

4. 심리전 전개 효과와 의미

이 장에서는 <완월회맹연> 인물 간 심리전 전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한 후 정인중의 심리전과 여원홍의 심리전의 중층적 심리전 전개 과정에서 포착할 수 있는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심리전 전개를 통해 <완월회맹연> 이 거둔 효과는 첫째, 심리전 전개 과정을 밀도 있게 제공함으로써 서사 전략적 측면에서 독자가 거대 장편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흡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독약, 칼이나 화살 등 물리적인 수단으로 반동인물이 주동인물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해치는 단순한 계략에서 느낄 수 없는, 고차원적인 흥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완월회맹연> 에서 보여주는 심리전의 전개는 실행 주체가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인물들의 심리적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고도의 지략 싸움을 펼치고 있어서 기나긴 장편소설에 탐닉할 수 있게끔 독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둘째, 심리전과 관련된 특정 사건을 아무런 서사적 맥락 없이 앞 권에서 먼저 제시한 후 그 사건의 배후를 뒤에서 밝히는 서사 전략을 피하고 있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궁금증과 긴장감을 갖고 서사의 흐름에 집중할 수 있게끔 유도하여 작품 속 인물들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서사적 장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가령 정인중이 벌이는 심리전에서 하위 전술의 한 방법으로 제시된 ‘장세린에게 어린 동자를 시켜 정성염의 화상(畫像)을 전달한 일’은 49권에 등장하고 있으나 해당 권수에서 누구의 계획인지 밝혀지지 않는다. 다만 그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앞서 제시한 이후 52권에서 이 사건이 곧 정인중의 심리전 하에 미리 계획된 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장치를 통해 독자들은 서사적 맥락의 선후관계를 되짚어보는 가운데 역동적 독서경험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심리전의 전개를 통해 주동인물뿐만 아니라 주변인물의 내면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다룬 문학의 심리전에서 제시한 6개 항목 가운데, 실행 주체나 목표 대상이 되는 인물에 관한 정보로 주어지는 성격이나 특성 외에 심리전의 전개를 통해서만 포착할 수 있는 내면심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원홍의 심리전에서 실행 주체인 여원홍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는 매우 영악하고 교활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나 그러한 성품의 이면에는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작품 속 그가 벌이는 심리전을 통해 목도할 수 있는 것이다. 곧 반동인물에 속하는 여원홍의 부성애가 잘 드러나는 지점을 심리전의 전개를 통해서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완월회맹연〉에서 심리전 전개를 통한 위와 같은 효과와 더불어 중층적 심리전의 과정을 통해 포착할 수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인중의 심리전 전개 과정에서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할 것은 바로 정인중이 숙부 정염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정염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거나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왜 굳이 그의 딸인 정성염을 건드렸느냐 하는 지점이다. 작품 내 정인중은 자신의 형인 정인성을 향해 서 독화살도 쏘고 자객을 시켜 직접 죽여 없애라고까지 명령을 내리기도 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숙부 정염에게는 직접적으로 그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일은 벌이지 않고 오히려 그 딸을 이용해 정염을 괴롭히는 방법을 택한다.

이는 정염이 그 딸 정성염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숙부의 사랑하는 딸의 입지를 망가뜨려서 아버지로서 딸의 안타까운 정황을 마음 아파하게끔 만들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 최근 제출된 논문에서는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자식의 혼사과정에서 보이는 여러 아버지들의 태도를 분석하면서 그중 정염을 ‘자식에 대한 사랑 앞에 이성을 잃는 아버지’로 파악했다.⁴⁹⁾ 물론 딸에 대한 애정이 깊은 만큼 그녀의 앞날이 추잡한 소문으로 얼룩지

는 일은 정염에게는 크나큰 고통스런 사건이다. 사랑하는 딸이 추잡한 스캔들에 휘말린 이유로 정염이 괴로워할 것이라는 점 또한 정인중이 벌이는 심리전의 큰 계획 속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인중은 숙부 정염의 성정(性情)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적 신념에 벗어나는 행보를, 그것도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 정성염으로 하여금 그 당사자가 되도록 계획함으로써 숙부 정염에 대한 복수를 실현한 것이다. 곧 정염의 이념적 강직성을 그가 가장 사랑하는 딸 정성염을 통해 훼손함으로써 평소 자신이 숙부에 대해 가졌던 심리적 불만을 해소하려 했던 것이다. 정염은 딸 정성염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보다는 “이념적으로 잘 길러진 행실이 바르고 정숙한” 딸 정성염을 바랐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그 동안 살아오면서 정염이 지켜왔던 그의 이념적 신념, 도덕적 명분에 부합하는 것이며 자식들에 대한 훈육 또한 이념에 입각해 철저히 이루어왔다. 그런 그에게 자신의 딸이 유부남과 화상을 신물로 주고받은 사이라는 스캔들에 휘말린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혈육으로서의 딸 정성염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 어느 것도 우선순위에 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자신의 이념적 신념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자식의 생명을 담보로 그것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지점도 일견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녀를 실제로 죽게 하려고 독약을 마시게 한다거나, 아무리 추잡한 소문의 증거물로 화상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건의 당사자라고 여겼다면 분노로 점철된 자신의 감정을 잠시 가라앉히고 자신의 딸 정성염으로부터 허심탄회하게 일의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는 했어야 옳다. 이러한 정염의 행보 자체가 그간 딸 정성염을 키우면서 보여준 아버지로서의 자애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또한

49) 탁원정(2019), 앞의 논문, 5~32쪽.

죽음을 눈앞에 둔 딸의 간절한 소원, 곧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해달라는 부탁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매정한 아버지 정염의 태도를 평가해볼 때, 정염은 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이념적 신념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일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정염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여원홍과 대비해볼 때, 과연 작가가 어떠한 의도를 염두에 둔 것인지 고민하게 한다. 여원홍은 작품 내에서 영악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나 누구보다 딸 여씨에 대한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다. 비록 그 사랑을 표출하는 방식이 옳지 않았다 하더라도 딸의 앞날을 위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친인 자신이 보아도 추악하고 역겨운 얼굴을 지녔고, 평소 행동거지에도 문제가 많은 딸 여씨이지만 적어도 그녀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작품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⁰⁾ 여원홍이 비록 교활하고 영악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지만 딸 여씨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당대 이념에 준하는 도덕 규범적 인물인 정염보다는 시사점이 있는 인물임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원홍은 자신의 혈육을 당대 이념보다는 우위에 놓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부녀간의 인간적 정리(情理)라는 측면에서 평가해볼 때, 어떻게든 자신의 딸의 앞길을 평탄하게 만들려는 여원홍과 딸을 명예살인의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정염의 태도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다.

〈원월회맹연〉의 작가는 작품 내에서 주변인물과 주변서사를 통해 끊임없이 당대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며 그것에 균열을 일으키는 서사전개를 작품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가령 교씨 부중의 며느리 여부인의 서사,

50) 장현의 아들 장세린의 배필로 자신의 딸 여씨를 보내기 위해 어리숙한 장현을 달콤한 말로 꾀어 결국엔 혼사를 이루게 하여 장세린 같이 똑똑하고 잘생긴 신랑감을 자신의 딸에게 선사했으며, 또한 사위 장세린이 딸 여씨를 구박할 때에도 어떻게든 자신의 딸의 입장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일을 꾸몄다.

장희린과 장세린의 형제 서사 등에서 그러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곧 여부인이라는 한 여성을 통해 가문이데올로기의 부계 혈통의 허상을 짚어 내고 있으며, 또한 이념적 교화로 새사람이 된 장희린과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가는 장세린을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조망하게 하면서 이념적 인간보다는 타고난 본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간형에 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⁵¹⁾

이 논문에서 다룬 여원홍이란 인물도 그러한 주변인물 중 하나이다. 여원홍은 <완월회맹연> 전체 서사에서 그리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니다. 또한 인물형으로 구분하자면 사람의 성격을 파악해 이를 교묘히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두뇌 회전이 빠른 교활하고 영악한 악인형 인물에 속한다. 그런 여원홍 같은 인물과 이념적이고 도덕적으로 강개한 정염을 대비적으로 놓고 관망할 수 있는 서사적 장치인 심리전을 통해 작가는 부성애(父性愛)라는 인간적 본성을 이념보다는 우위에 놓는 서사적 전개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원홍 같은 악인형 인물조차도 자신의 딸을 위할 줄 아는데, 정염은 굳은 이념에 종속된 채 자신의 신념과 가문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딸 정성염에게 사약을 내려 죽이려고 했다. 심지어 딸의 입장을 헤아려보려는 시도는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휘말린 채 과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작가는 여원홍이란 주변인물을 통해 정염이 이념적 잣대로 자신의 딸을 향한 마음을 끊어낸 냉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보다는 이념에 우선하는 인간적 본성, 즉 아버지로서 혈육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완월회맹연>의 작가가 지닌 인간 심리에 관한 섬세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진단할 수 있으며, 당대 이념에 대한 무조건적 추수에 대항하는 서사로도 기능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와 동시에

51) 한정미(2021), 앞의 논문, 194~199쪽.

‘인간적 본성’과 ‘당대 이념’에 입각한 대립되는 아버지상을 제시하면서 작가는 과연 어느 쪽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를 깨닫게 하고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본 연구는 〈완월회맹연〉의 등장인물인 정인중과 여원홍이 벌이는 중층적 심리전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포착된 의미가 작가의 인간 본성에 대한 섬세한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다. 심리전이란 용어 자체가 실제 군사 전략에서 사용되던 것과는 별개로 문학 연구에서는 극히 드물게 적용되던 지점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에서 다루는 인물 간 신경전과의 비교를 통해 ‘심리전’이란 용어를 본격적인 문학 연구에 차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군사학에서 활용되는 전술의 측면에서의 심리전과는 구분되는 문학작품 연구에서 심리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몇 가지로 항목화하여 구체적인 분석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리전을 분석한 결과, 〈완월회맹연〉에서는 인물 간 중층적 심리전의 전개 양상이 포착되었는데, 여기서 딸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통해 〈완월회맹연〉의 작가는 주변인물과 주변서사를 통해 끊임없이 당대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며 그것에 균열을 일으키는 서사전개를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이념에 우선하는 인간적 본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국문 장편소설 〈완월회맹연〉의 서사 전략을 인물의 심리라는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작품이 지닌 흡인력의 주요 동인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동시대 산출된 여타의 국문 장편소설에서 포착되는 다양한 심리전의 양상을 함께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이는 차후 논의의 범주를 확장하는 가운데 보완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진세, 독해본 『玩月會盟宴』 12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서울대 규장각본 〈玩月會盟宴〉 180권 93책.
한국학중앙연구원 낙산재본 〈玩月會盟宴〉 180권 180책.
정선희, 조혜란 역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소현성록〉 1』, 소명출판, 2010, 18~567쪽.

2. 논저

- 손자(김원중 역), 『손자방법』, 휴머니스트, 2016, 15~345쪽.
이재운, 『특수작전의 심리전 이해』, 집문당, 2000, 13~423쪽.
_____, 『군사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지문당, 2015, 3~585쪽.
이현주, 「〈완월회맹연〉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88쪽.
임명현 외, 「현대 심리전 양상과 미래 심리전 발전방안」, 『군사연구』 제146집, 2018, 285~310쪽.
장시광, 「대하소설 여성수난담의 성격-〈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47, 동양고전학회, 2012, 7~50쪽.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11~325쪽.
조혜란 외, 『달밤의 약속, 〈완월회맹연〉 읽기』, 책과함께, 2019, 9~391쪽.
탁원정, 「〈쌍천기봉〉 연작의 혼인담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분노」, 『고소설연구』 39집, 2015, 213~246쪽.
_____,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병과 그 의미」, 『문학치료연구』 4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161~193쪽.
_____,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 속 아버지 형상과 그 의미-자식의 혼사 과정에서 보이는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5~32쪽.
폴 M. A. 라인바거(유지훈 역), 『심리전이란 무엇인가』, 투나미스, 2020, 1~360쪽.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서사문법과 독서역학」,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27~55쪽.
_____, 「〈완월회맹연〉의 여성 관련 회담(戲談) 연구: 남성 회담꾼 '정염'과 여성 회담꾼 '상부인' 간의 회담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

- 제25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273~310쪽.
- _____, 「〈완월회맹연〉의 정인광: 폭력적 가부장의 “가면”과 그 “이면”」,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27~64쪽.
- _____, 「대하소설의 발산형 여성 인물 연구-〈완월회맹연〉의 박씨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353~386쪽.
- 한정미, 「〈완월회맹연〉 인물 심리의 형상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1~248쪽.

ABSTRACT

Aspects and Meanings of Psychological Warfare in
Wanwolhoemaengyeon

Han, Jeong-mi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spect of psychological warfare that develops between characters in the Korean novel *Wanwolhoemaengyeon* and to derive its meaning. To this end, it specified its meaning by redefining the concept of psychological warfare and comparing with a war of nerves, as it suggested that the term psychological warfare, which has always been used in actual military strategy, be borrowed from full-scale literary studies. Moreover, to present a specific method of analysis by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psychological warfare and tactics, this study categorizes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psychological warfare in literary works into several items, including the characterization of characters and the personality of targets. According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sychological warfare in the work, the developments of layered psychological warfare between characters were found in *Wanwolhoemaengyeon* — in other words, “Jeong In-jung’s psychological warfare targeting Jeong Yeom” and “Yeo Won-hong’s psychological warfare targeting Jeong Seong-yeom”. These two psychological warfares were developed in the form of including Yeo Won-hong’s psychological warfare as a sub-tactic within Jeong In-jung’s psychological warfare. Through the way the two fathers treat their daughters which was revealed in the aspect of psychological warfare, it could find that the author of *Wanwolhoemaengyeon* constantly opposes the ideology of the time through the surrounding people and the surrounding narratives and shows narrative developments creating a crack in it, while helping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human natu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s the main driver of the work’s attraction by examining the

narrative and the composition strategies of the Korean novel from the perspective of a character's psychology.

Key Words psychological warfare, *Wanwolhoemaengyeon*, a war of nerves, personality, ideology, nature, Korean novel, surrounding people

논	문	투	고	일	:
				2022.01.25.	
심	사	완	료	일	:
				2022.02.09.	
계	재	확	정	일	:
				2022.02.16.	